

아무리 단속해도 ... 음주운전 '불감증'

대대적 근절 캠페인 불구 "괜찮겠지" 광주·전남서 지난해 벌금만 300억원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이면 도로 등에서 이뤄졌던 음주 단속을 대로변에서 확대하는가 하면, 빗속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무차별적 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도, 사망 사고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지난 한 해 음주 단속에 걸려 낸 벌금만 300억에 이른다.

▷벌금 150만원은 푼돈? =이모(36)씨는 지난 3월 광주시 남구 주월동 제 2순환도로 송원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100일간의 면허 정지와 1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속 경찰들 사이에서는 "살기 힘들어 죽겠다면서도 '생돈' 내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지난 2010~2012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0년 광주 9635건, 전남 16007건 ▲2011년 광주 8978건, 전남 11799건 ▲2012년 광주 9685건, 전남 9954건 등이다.

▷"음주운전, 괜찮겠지?"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3425건(정지 1847건·취소 1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00건(정지 1215건·취소 1385건)보다 825건 늘어났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고(8건)도 지난해 동기(5건)보다 많았다.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음주운전

사전 예고제를 앞두고 이면 도로 등에서만 이뤄졌던 음주 단속을 대로변으로 확대하는 등 "단속 강화"를 내세웠지만 달란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단속이 강화된 지난달 22일 이후 12일까지 경찰에 적발된 음주단속 건수는 646건(정지 335건·취소 311건). 지난해 같은 기간 530건보다 무려 100건 이상 늘어났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하지 말자"는 인식이 확산하는 게 아닌, 단속을 피해 다니던 양면 음주운전 적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라는 시민 인식을 바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선생님 사랑해요" 광주 일곡초등학교 적십자 단원들이 13일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교내에서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두를 닦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학생끼리 다투다 의식불명

광주 서구 중학교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서로 다투다 1명이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중학

교 교실 복도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서로 싸우다 이 중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의 신고로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이날 사고는 점심시간 교실에서 다

투던 학생 중 1명이 복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장난하다 싸움으로 번져 학생이 다친 것 같다"며 "학교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성접대' 의혹 재소환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14일 윤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이번 주 중 윤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며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 중 우리가 조사한 것과 차이나는 부분과 그때 시간 상 미처 진술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불손한 피고인, 여검사에 욕설 상스러운 말로 대꾸 ... 고소 비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로 인해 급기야 검사가 피고인과 설전을 벌이다 고소사건으로 번졌다.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여검사가 생각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자 욕설을 내뱉었고, 여검사도 상스러운 말로 되받아 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여검사와 여판사가 급증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의 법정 경시 풍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폭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45)씨가 최근 광주지검 A(여·30)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검사는 지난 3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한 직후 김씨가 욕설을 내뱉자 되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며, 김씨와 김 검사

가 욕설을 주고 받아 당시 법정 경위가 김씨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정지됐다.

이후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씨에게 별도의 감치 처분을 내리지는 않고 3시간 뒤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김 검사를 상대로 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자체 감찰 등을 통해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최종 결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2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815) 김장동



캐나다 국적 10대 기내서 여성 성추행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비행기 안에서 앞 좌석의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캐나다 국적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미국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캐나다 유학생 B(여·20)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초까지 세워 놓고 '도리짓고맹'

○여수경찰은 13일 심야에 개인 사무실에서 보초까지 세워놓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박모(56)씨 등 남녀 22명을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남성 9명, 여성 13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 혼성 도박단은 지난 11일 새벽 2시 30분께 여수 화동 개인사무실에서 250만원 상당의 판돈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맹' 도박을 벌인 혐의.

○이들은 사무실 밖에 보초까지 배치하고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며, 경찰은 박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수사할 계획.

/여수=김청희기자 chkim@

경찰이 조폭과 친분, 사건청탁 돈 받아

광주지법, 점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13일 조직폭력배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건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찰관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책

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인 박씨는 총장OB과 행동대원 김모씨로부터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정기적인 모임을 하며 친분을 쌓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그 지인이 연루된 2개 사건의 해결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공공기관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

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인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

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3월 한 대구 시 외버스 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다수 제기돼 관심이 집중됐다.

/연합뉴스

1 시공 전 / 단열에이스카프시공 2 단열에이스카프 시공 후 3 트라이슈머 단열시공 후 4 시공 후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 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목적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